

추석 연휴 전후에 「노사 합동 자체안전점검」 꼭 실시해 주세요

- 9월 20일 '현장점검의 날', 중소규모 건설·제조·물류 관련 업종 집중점검 -

「추석 전·후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 기간(9.18.~10.6.)」을 운영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9월 20일 '현장점검의 날'에 중소규모 건설·제조현장 및 물류 관련 업종*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 ▲800억 원 미만 건설현장, ▲100인 미만 화학물질 취급 등 제조업(공정안전 관리<PSM> 대상 등), ▲소형화물 운수업 등 물류 관련 업종 등

전국의 산업안전보건감독관 등은 ①화재·폭발 및 화학물질 누출위험이 큰 분야, ②무리한 공기·납기 단축의 우려가 있는 분야, ③같은 장소에서 여러 작업을 혼재하여 진행되는 분야 등 산업재해 발생 취약분야를 특정해,

▲3대 사고유형·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붙임1),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붙임2), ▲작업전 안전회의(TBM) 등 20대 안전강령(붙임3)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한다.

특히 연휴 직전과 직후에 이러한 산업재해 발생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동으로 자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중요성과 작동성도 강조하고 있으며,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서는 9월 4일부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건설현장 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정식 장관은 “추석 전·후에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면서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위해 노사가 함께 그 어느 때보다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 붙임 1.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1부
2.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1부.
3. 추석 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 경보 발령(20대 안전강령) 1부. 끝.

담당 부서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8901)
		담당자	서기관 사무관 주무관	용윤서 (044-202-8902) 이철호 (044-202-8904) 정수빈 (044-202-8908)



추석 연휴 대비 중대재해 위기 경보 발령!!!

중대재해
사이렌

배포일시 : 2023년 9월 18일(월)



4월까지 감소세를 유지하던 중대사망재해가 5월부터 늘어나다가 **8~9월 들어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중대재해가 전년보다 늘어날수도 있는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9월은 예년보다 긴 장마와 폭염으로 건설현장 공기가 지연된 상황이고, 추석명절을 앞두고 생산도 늘어나는 때이므로 자칫 생산과 공기에 밀려 안전이 취약해질수 있는 위험한 시기입니다.

기업과 근로자 여러분께서는 추석명절 전후로 단 한명의 부상도 용납할수 없다는 마음으로 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따뜻하고, 행복한 명절, 안전과 함께 하세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류 경 희

⚠ 20대 안전강령 이것만은 꼭 지킵시다 ⚠

Ⅰ 작업환경

1. 작업장 정리정돈 철저
2. 적재적소에 안전표지판 배치
3. 작업시작 전 TBM 실시

Ⅱ 작업방식 및 행동

4. 위험성평가 시 반드시 근로자 참여
5. 위험행동(뛰기, 오르기 등) 금지
6. 위험 작업 작업절차 준수
7. 동료의 위험행동 즉각 지적
8. 안전모·안전고리 착용 철저
9. 위험 감지 시 즉각 행동 정지
10. 후크·벨트가 있어도 방심 금지
11. 지붕 작업 시 보호장비 착용
12. 호우·태풍 시 무리한 작업 자제

Ⅲ 기계·설비·장비

13. 고소작업 도구 임의 변형 금지
14. 차량 후진·회전 시 주위 확인
15. 기계 정비·수리 시 정지
16. 기계 설비 작업 시 방호장치 및 덮개 설치
17. 기계·장비의 무게·속도 등 한도 준수
18. 측정 장비 없이 밀폐공간 진입 금지
19. 사업장 내 안전문화 확산
20. '중대재해 사이렌' 적극 활용